전남도 – 낙지잡이 어민 '금어기' 갈등

"8월 한달만" 어민 700여명 도청 앞 집회 개최

道 "산란기 감안 6월로"… 다음달 공청회서 결정

해양수산부가 낙지 금어기를 6월로 지정하면서 전남도내 낙지잡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금어기 고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낙지 그물코를 기존 22㎜에서 18㎜로 완화해 달라는 어민들의 민원도 공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전남도는 17일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께 시·군과 낙지잡이 어업인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낙지 금어기와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 75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대 산란기(6~7월) 가운데 7월 한 달을 낙지 금어기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전남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권고 금어기를 공포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낙지 금어기는 광역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역별로 1개월 이상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4월 공청회를 통해 낙지 금어기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별도 고시가 없으면 해수부의 권고 기간(6월)을 따라야 한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 1월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을 22㎜에서 18㎜로 완화해달라'는 낙지 통발 어업인들이 민원에 따라 시·군 및 수산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연안연승협회, 연안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무안갯벌낙지 생산자협회 등 낙지잡이 타 업종 단체에서 자원 남획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지난 2014년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낙지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상태가 낮은 수준이므로 규정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 통발어업을 단속하는 등 자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4월 공청회 때 시·군과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그물코 기준 변경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지역 낙지잡이 어업인들은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을 완화해줄 것과 낙지 금어기를 8월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오늘의 날씨

해뜸 06:39 해짐 18:43 달뜸 13:59 달짐 03:14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리고 비	11/17	보 성	흐리고 비	10/15
목 포	비온뒤 갬	11/16	순 천	흐리고 비	10/16
여 수	흐리고 비	11/15	영 광	비온뒤 갬	10/16
나 주	흐리고 비	10/17	진 도	비온뒤 갬	11/17
완 도	흐리고 비	11/17	전 주	흐리고 비	9/16
구 례	흐리고 비	10/16	군 산	흐리고 비	9/14
강 진	흐리고 비	11/18	남 원	흐리고 비	9/16
해 남	흐리고 비	11/18	흑산도	비온뒤 갬	9/13
장 성	흐리고 비	9/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서~북	0.5~1.5
	먼바다	북동~동	1.0~2.0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	서~북서	1.0~2.0
	먼바다(동)	남동~남	2.0~3.0	서~북서	2.0~3.0
	먼바다(서)	남서~서	2.0~3.0	서~북서	1.5~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0:30	02:58
	22:47	16:16
여수	05:58	12:27
	18:25	00:00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낮음

◇ 주간 날씨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10/18	6/17	6/17	6/17	5/16	4/15	2/14

전남대 교수회, 총장 선출방식 투표로 결정

1200명 다음달 4일~8일… 대학측 수용여부 미지수

전남대 교수들이 다음달 4일 총장 선출 방식을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교수 총투표 결과가 대학 측의 총장 선출 방식에 반영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학 안팎의 분위기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17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제도 투표일정 등을 확정했다.

우선,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간선제 선출 여부와 관련,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1200여명의 교수 총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총장 직선제 방안은 기존 교수들 위주의 투표 방식을 벗어나 직원·학생 뿐 아니라 조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게 핵심이다. 구성원별 참여비율은 교수(84%)·직원(12%)·조교(2%)·학생(2%) 수준이다.

간선제 선출방식은 우선,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설 경우 교수·직원 200명으로 구성된 가칭 정책평가단을 꾸리고 후보별 공약 검증·서류 심사·토론회 등을 거쳐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낸 뒤 2차 정책평가단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이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후 2차 정책 평가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안으로, 추천위원회는 ▲교수 72% ▲직원 12% ▲외부위원 10% ▲조교·학생 6% 등의 비율로 18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교수회는 총투표를 거쳐 1개의 총장 선출 방식을 확정한 뒤 대학 본부에 전달한다는 구상으로, 대학 안팎에서는 정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 선출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교수 총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조선대 교수회, 총장 직선제 선출 결의

조선대 교수들이 차기 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의장 이대용 교수)는 17일 오후 교내 해오름관에서 교수평의회 총회를 열고 ▲구성원의 직접 선거로 총장을 선출한다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사회는 조속히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 등 2개 안을 결의했다.

교수평의회는 조선대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이날 총회에는 121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총장 직선제 선출' 에 찬성했다. 조선대 이사회가 오는 24일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 이사회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2012년 이후 다음 선거는 간선제로 의견을 모았던 점, 정부의 간선제 선출 방침 등을 고려하면 교수회 의견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대학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원들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이사회 불신임을 비롯, 올 연말 예정된 이사 교체 등과 맞물려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선대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 곳곳에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선거 때의 0.25%(학생 2만명 중 50명)가 아닌, 5%(2만명 중 1000명)에게 투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앗~ 호랑나비다" 17일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열린 '제18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꽃에 날아든 호랑나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축제는 4월 18일부터 열흘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등 4개 교육청 '대안 교과서' 제작 착수

정부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대응할 '대안 교과서' 제작이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전북·세종·강원교육청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국정화에 대응할 대안 교재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끝난 뒤 광주·전북·세종·강원 도교육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교과서 보조 교재 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대안 교과서에 담길 내용과 구체적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4개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추천한 집필진과 시대별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 10명 가량을 포함해 34명의 최종 집필진을 확정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와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윤덕훈 상일여고 교사·김보름 용두중 교사·김민선 신용중 교사 등 5명을 추천했다. 김덕진 교수의 경우 '소쇄원 사람들'이라는 호남역사문화연구총서를 낸 바 있다. 또 신주백 연세대 교수와 조법종 우석대 교수 등도 집필위원에 포함됐다.

대안 교재는 기존 통사·중앙 중심의 교과서 기술 방향에서 벗어난, 지역별·특정 주제별 교과서 형태로 제작되며 오는 2017년 9월 안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고등 외에 초등 역사 교재도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선정

전남대가 침체 일로에 있는 인문학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코어' 사업) 대상으로 전남대·서울대 등 전국 16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어 사업은 대학 인문분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첫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문학 보호·육성 및 사회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6개 선정 대학 중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 서울대·고려대·경북대·전북대 등도 포함됐다. 전남대의 경우 사업 계획을 감안,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9억원을 지원받게 됐고 지원금의 20%는 전 계열 학생에 대한 인문소양 교육 등 인문역량 강화에 쓰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